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부처님의 십대 제자 가운데 신통력이 출중했던 목련존자의 모친은 이승에서의 삶이 덕스럽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신통력이 뛰어난 목련존자가 모친의 사후 세계가 궁금하여 관법으로 살펴보니, 어머니는 지옥에서 고통스러움을 호소하며 아들인 목련존자에게 자신을 지옥으로부터 구제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목련존자는 이런 상황을 부처님께 여쭈니 부처님께서는 하안거 해제일인 칠월 보름날에 대중에게 공양을 베풀고 일심으로 모친의 구원을 위해 기도할 것을 권합니다. 마침내 대중들의 일심 축원으로 목련존자의 모친은 지옥의 고통에서 해방됩니다. 이날이 바로 음력 7월 15일, 우란분절 또는 백중이라고 합니다. 법주사에서는 7번의 정성스러운 재를 올리면서 조상 천도를 위한 백중 49일 특별기도를 봉행합니다.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49재 일정

- **입재** : **7**월 **13**일(음 5월 26일) 목요일 오전 **10**시
- **1재** : **7**월 **19**일(음 6월 2일) 수요일 오전 **10**시
- **2재** : **7**월 **26**일(음 6월 9일) 수요일 오전 **10**시
- **3재** : **8**월 **2**일(음 6월 16일) 수요일 오전 **10**시
- **4재** : **8**월 **9**일(음 6월 23일) 수요일 오전 **10**시
- **5재** : **8**월 **16**일(음 7월 1일) 수요일 오전 **10**시
- **6재** : **8**월 **23**일(음 7월 8일) 수요일 오전 **10**시
- **7재** : **8**월 **30**일(음 7월 15일) 수요일 오전 **10**시



- **동 참 금** : 영가 1위당 **2**만원 기도비 - **3**만원 (49일동안 영가등 밝혀드립니다)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법주사 원주실 (043)543-4755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www.beopjusa.org 2023 | 6

부처님 말씀 경전 가운데 네 가지 법 / **주지스님 법문** 꽃가루 / **감로의글** 일묵여뢰 / **걸망메고** 사찰의 주련 / **기획특집** 부처님 오신 날 / **수행여화** 꽃모닝! 하세요 / **법주사 소식** / **법주사 행사일정** /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 **하안거 백일기도** / **연등모연문** /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경전가운데 네 가지 법

옛적에 어떠한 범지(梵志)가 있었는데 모든 경전을 통달하여
내가 천하에 제일이라 하고 지혜로써 나를 당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 함에 응하는 자가 없으므로
큰 자만심을 내어 밝은 날에 횃불을 잡고 성중에 들어가니 모든 사람들이
밝은 날에 횃불은 웬일인가 하고 물음에, 범지가 대답하되,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고 어두워서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므로 이 횃불로써 비춘다 고 하였다.
부처님께서는 이를 민망히 여기시고 현인(賢人)으로 나타나셔서 범지에게 말씀하시기를
경전 가운데 네 가지 법이 있으니 범지 네가 잘 아는가 하시니,
범지가 이 물음의 뜻을 잘 아는 고로 부끄러운 얼굴로 참회하고 제자 되기를 원하였더니,
부처님께서 게송(偈頌)으로서 말씀하시되 적게 들은 것으로서 많이 들은체 하고
남에게 교만심을 내어 횃불을 비춘 것은 장님이 촛불을 든 것과 같아서
자기는 오히려 밝지 않느니라 하셨다.
이곳에 소를 많이 기르는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의 많은 소는 모두 잃어버리고
부질없이 다른 사람의 소를 보고 자기의 소인줄 알고 도리어 자기의 소는
악한 짐승에게 잡아먹히고 산중에서 자기의 많은 소를 잃어버리고도 오히려 깨닫지 못하니
누가 이를 보고 비웃지 않으리오.
사람도 이와 같아서 많이 듣고 이론만 알아 바른 참뜻은 알지 못하면서 남을 위하여
가르치기만 하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라고 하셨다.
〈법구비유경〉 다문품



유네스코세계유산 산사, 한국의 산지승원

法住會報

2023 6 | 통권 377호



2 부처님 말씀 경전 가운데 네 가지 법
4 주지스님 법문 꽃가루 정도 스님
6 감로의글 일묵여뢰 장산 스님
10 걸망메고 사찰의 주련 진정 스님
13 기획특집 부처님 오신 날
16 수행여화 꽃모닝! 하세요 현진 스님
19 법주사 소식
20 법주사 행사일정
21 법주사 광명진언기도 / 신묘장구대다라니 독송기도
22 하안거 백일기도
23 연등모연문
24 우란분절 백중영가 천도재

월간 법주회보 불기 2567(단기4356)년 6월호 통권 377호 / 1989년 9월 7일 등록 (등록번호 충북 라 01005) / 제3종 우편물(나)급 인가 / 발행인 · 정도 / 주간 · 현진 / 편집장 · 무경 / 편집위원 · 김경래 / 전화 (043)543-3615 / 팩스 (043)543-3620 / 발행처 · 법주사

꽃가루

정도 스님 법주사 주지

매년 부처님 오신 날이 있는 오월은
눈이 즐거운 달입니다.
사찰을 장엄하는 온갖 연등은 물론
벚꽃이 지나간 후 피기 시작하는 수많은
종류의 꽃들은 지나던 발길을 자주 멈추게 합니다.
이맘때쯤 꽃과 함께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것이
꽃가루입니다.
특히 산중에서는
하루라도 방이나 마루를 닦지 않으면
지난 자리에 발자국이 남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꽃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면서
꽃가루를 싫어하고 피할 수는 없습니다.
꽃만 볼 수 없는 것처럼
우리의 행복과 즐거움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꽃이 피면 생기는 꽃가루와 같이
우리의 인생에서도 행복과 함께 필연적으로
같이 찾아오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귀찮고 보기 싫은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꽃가루를 꽃과 함께 받아 줄 수 있는
마음이라면 우리의 삶도 조금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일묵여뢰一默如雷

장산 스님 법주사 사리각

불이의 법문과 팔부중도의 이치를 훌륭하게 해설하신 문수사리보살과 용수보살,
그에 침묵으로 응답하신 유마힐거사, 한 침묵이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가 되어
중생들의 가슴에 생생히 파고든다.



계성편시광장설溪聲便是廣長舌
산색기비청정신山色豈非淸淨身
야래팔만사천게夜來八萬四千偈
타일여하거사인他日如何擧似人
–소동파蘇東坡–

위의 게송은 무정설법無情說法을 읊조린 것이다.

'계곡물 흐르는 소리,
부처님의 법문이요.
산색 그대로가 어찌
청정법신 비로자나불이 아니겠나!
밤새도록 수많은 법문을,
다른 날 어떻게 타인에게 전해 드릴까!' – 소동파 –

정토삼부경중, 관무량수경에
산하대지山河大地가 상주설법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듣지 못할 뿐이라,
중생들은 오늘의 삶에 급급하여 자연이 말하고
알려주는 참 소식을 알지 못할 뿐이다.
반야바라밀을 수행하여 깨달음에 이르는 길이
여럿 있지만, 팔부중도설과
유마경〈입불이법문품〉에 나오는 여러 대보살과
문수보살의 언설과 유마힐거사의 답변은
궁극적으로 우레같은 침묵이다.
침묵과 우레는 반대인 것 같으나,
궤를 하나로 연결한다. 마치 훌륭한 노동력은
질 좋은 휴식이 수반하듯이.
이를 아울러 〈불이중도不二中道〉라 한다.
여러 보살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차제를 묻자
문수사리보살은 이렇게 대답한다.
"제 생각에는 일체법에 대하여 말할 수도 없고,
설명할 수도 없으며, 들어내어 보여 줄 수도 없고,
법에 대한 알음알이도 없고,
어떠한 질문이나 대답도 여의는 것이
불이법문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유마경 입불이법문품)"
이렇게 대답한 후 문수사리보살은
유마거사에게 답하기를 청하였는데,
유마거사는 아무 말 없이 묵연히
침묵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시時 유마힐維摩詰 묵연무언默然無言)
이에 문수사리보살이 극히 찬탄하여 가로되
'유마거사의 한 침묵이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와 같다.'라고 감탄하였다.
결국, 진리는 언설로 표현할 수 없지만,
문수보살은 뛰어난 변재로 진리를
언설로 구사하였고, 유마거사는 담담하게
침묵으로 일관하였다.
모든 진리는 언설로 구사할 때는 제2구에 속하지만,
2구로 말미암아 제1구가 드러나게 된다.
역대 조사스님은 근기에 따라 2구와 1구를
활용하는데, 제1구는 결국 언어도단言語道斷
심행처멸心行處滅한 곳이니,
즉시에 활달하고 해탈자재한 경지를 드러냄이다.
1구는 모든 깨닫지 못한 중생들도
때로는 쓰고 있지만 정작 본인은 모르고 쓴다.
예를 들면 '사랑한다.'라는 뜻도 '사랑한다'
표현하면 2구에 떨어지지만,
사랑의 이유를 설명하면 제3구에 떨어진다.

그래서 세속에서 왜 사랑하느냐 (사람이나 물건을)
물으면 사랑하는데, 무슨 이유가 붙느냐고
'내가 좋아서 사랑하는데'하고 되물어 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랑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것이
오히려 참사랑을 그르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이를 한번 툭 치거나, 그윽이 바라본다면,
그것은 제1구에 속한다. 실행에 있어 언설을
경유經由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선가禪家에서 '개구즉착開口卽錯' 입을 열면
그르친다. 말없이 적실하게 행동으로 보이라 한다.
또 '도불속지부지道不屬知不知'라 한다.
진리, 혹은 도는 알고 모르는데 속하지 않아서
현전하는 데서 바로 보여야한다.
도道란 인생을 고통과 피폐疲弊에서 벗어나게 하는
최고최대의 가치를 지녔지만,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돈과 명예와 권력, 사랑,
같은게 아니라 인생을 풍요롭고 환희스럽고
가치 있게 이끌어 주는 훌륭한 지혜를 겸비한
행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돈이 많은 사람이나
지식인이나 권좌에 있는 인물이나
명예가 높더라도 항상 도는 생각하고
실천 수행하여야 할 덕목德目인 동시 인생을
아름답게 장엄한다.
공자님도 '조문도석사가의朝聞道夕死可矣'라
하셨다. '아침에 참다운 진리를 깨우치면
오늘 저녁에 생을 마감해도 좋다.'고 말씀하셨다.
모든 수행자가 도를 알기 위해 노력해도
도는 그리 만만한 것이 아니다.
〈중론〉 관인연품에서 팔부중도설八不中道說로서
불이법문을 해설하고자 한다.

팔부중도의 핵심은
'새로 발생하는 것도 아니며,
소멸하여 없어지는 것도 아니다.(不生不滅).
항상함도 아니요
단멸해서 끊어짐도 아니다.(不常不斷).
같지도 않고 다르지도 않다.(不一不異).
오는 것도 아니요. 가는 것도 아니다.(不來不去).'
이러한 인연으로써 말씀해 주시어
여러 희론을 소멸해 주시니,
모든 설법자 가운데 으뜸이신 부처님께
저는 머리 숙여 예배하옵니다.(중론 관인연품).
중론中論의 저자는 나가르주나 즉,
용수龍樹보살이다.
연기생연기멸緣己生緣起滅이기에 공空이며
가명假名이고 중도임을 명료하게 설하고 있다.
나아가 공은 자성이 없어 인연에 의해
생하고 인연에 의해 멸함을 다시 한번 강조한다.
'원인과 조건에서 생긴 현상을
나는 공이라 말한다.(衆因緣生法 我說卽是空).
왜 그러한가? 여러 조건이 갖춰지고 화합해서
사물이 발생하기 때문이다.(衆緣具足和合而物生).
이러한 사물은 여러 원인과 조건에
귀속되는 것이기에 자성이 없다.
(是物屬衆因緣 故無自性).
자성이 없으므로 공한 것이고
공도 또한 공한 것이다.(중론 관사제품).
그런데도 중생을 인도하기 위해
짐짓 이름을 말하는 것이다.
'있다' '없다'의 양극단을 여의었기에
중도라 한다.(離有無二邊 故名爲中道).

현상은 있는 듯한데,
자성이 없으므로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만약 현상에 자성이 있다면
여러 조건을 기다려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若法有性相 則不待衆緣而有).
만약 원인과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현상은 있을 수가 없다.(若不待衆緣 則無法).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현상은 없다.
불이의 법문과 팔부중도의 이치를
훌륭하게 해설하신 문수사리보살과 용수보살,
그에 침묵으로 응답하신 유마힐거사,
한 침묵이 천지를 진동하는 우레가 되어
중생들의 가슴에 생생히 파고든다.
깨달음의 세계는 멀고도 가깝고,
가까우면서도 멀다.
자세히 살필지어다.

역천겁이불고歷千劫而不古
긍만세리장금亘萬歲而長今이로다.

천겁千劫이란 세월이 흘러도 옛날이 아니요.
만세萬歲에 뻗쳐 있어도 항상 지금이다.
– 함허득통涵虛得通 –



사찰의 주련柱聯

진정 스님 법주사 포교국장

주련을 이해하고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작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관심을 가져서 사찰을 방문하는 분들께 이를 통해 사찰의 역사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자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겠다.

주련은 기둥이나 벽에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로
기둥柱마다 시구를 연달아 걸었다는 뜻에서
이런 이름이 붙었다.
원래는 좋은 글귀나 남에게 자랑할 내용을
붓글씨로 써서 그냥 기둥에 붙이거나 혹은
얇은 판자에 새겨 걸었던 것이 후대에 발전하여
지금은 일정한 양식을 갖춘 주련으로 발전했다.
법당에 걸려있는 주련은 판 위아래에
연잎이나 연꽃, 혹은 당초 무늬를 새겨 다듬고
그 가운데에 글귀를 적는데 검은 바탕에
하얀 글씨로 써넣어 시각적인 효과를
극대화한 특징이 있다.
내용은 부처님 말씀이나 선사들의 법어가
주 내용이다. 사찰의 기둥이나 벽에 성구를
세로로 써 붙이는 글씨. 기둥마다 부처님 성구나
시구를 연하여 걸었다는 뜻에서 주련이라 부른다.
이광호 연세대 철학과 명예교수는
"주련은 건물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있는 메시지"라며
"선인들이 일상에서 수양에 힘쓰고 운치를
누렸다는 문화의 발자취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어렵지만 주련을 이해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한민 작가는 "절의 외형은 어디든 비슷한데,
주련은 각 사찰의 존재 이유를 설명해 주는
차별화 포인트"라고 말했다.
그는 "주련을 곱씹으면 사찰은
전혀 새로운 공간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덧붙였다.
월서 스님은 "주련 없이는 옷만 걸친 상태,
또는 껍데기만 본 채 사찰의 절반도
느끼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사찰 주련 전문가는
"불교는 형상을 갖고 있지 않지만,
불교가 사회와 관계를 갖게 되면서
가람이라는 건물 배치의 형상이 필요했는데,
주련이 없다면 각 건물의 의미를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사찰들도 좀 더 쉬운 주련을 선보이며
방문객을 맞이하고 있다.
도봉산 망월사, 강화 정족산 전등사 등은
주련 밑에 해석을 달아줘
이해하기 쉽게 해주고 있다. 운악산 봉선사,
안성 서운산 석남사, 서울 삼청동 칠보사,
지리산 화엄사 등은 아예 한글로
주련을 만들어 걸기도 했다.
주련이 수십, 수백 년 비바람에 맞다 보니
일부는 글자를 알아보기 어렵게 마모되거나
소실되기도 했다. 민족 유산인 만큼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보존 · 관리가 필요하다.
요즘 불자들이 한문을 이해하기 어렵다 보니
불교가 더 멀게 느껴진다. 기존 문화재는 보존하되
한글 편액과 주련을 늘려 대중화에 나서야 할 때다.
또한, 사찰에 계신 스님들도
주련의 뜻을 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다 보니 사찰을 방문하신 분들께
그 뜻을 설명하기는 부족하다.
더욱이 점점 더 한문보다는 영어가 사회의 통념어로
사용되는 비중이 높아만 가는 현실에
옛 고전이나 한문에 관심을 가지는 이가 없다.
주련을 이해하고 불교의 사상과 가르침을
이해하는 작업이 앞으로 미래에 대한
준비라고 생각한다. 좀 더 세심한 연구와 관심을
가져서 사찰을 방문하는 분들께 이를 통해
사찰의 역사와 부처님의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수단임을 자각하고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법주사는 553년에 창건되었다.
주련은 그 사찰의 창건과 불교의 사상을 알 수 있는
가장 핵심적 내용을 담고 있다.

참고 (법주사)

금강문金剛門

옹호성중만허공擁護聖衆滿虛空
도재호광일도중都在毫光一道中
신수불어당옹호信受佛語當擁護
봉행경전영유통奉行經典永流通

허공에 가득찬 옹호성의 무리
모두가 호광의 한 길 안에 있도다.
부처님 말씀 믿고 받들어 옹호하여
경전 봉행하여 영원히 유통케 하리다

※옹호 擁護: 부축하여 보호함. 편역 들어 지킴.
※성중 聖衆: 극락세계極樂世界에 있는
모든 보살菩薩.
※호광豪光, 옥호玉毫: 부처의 두 눈썹 사이에 있는
희고 빛나는 터럭, 이광명이 무량세계를 비춘다.
부처님의 백호상白毫相.
※신수 信受: 믿고 받아들임.

대웅보전 大雄寶殿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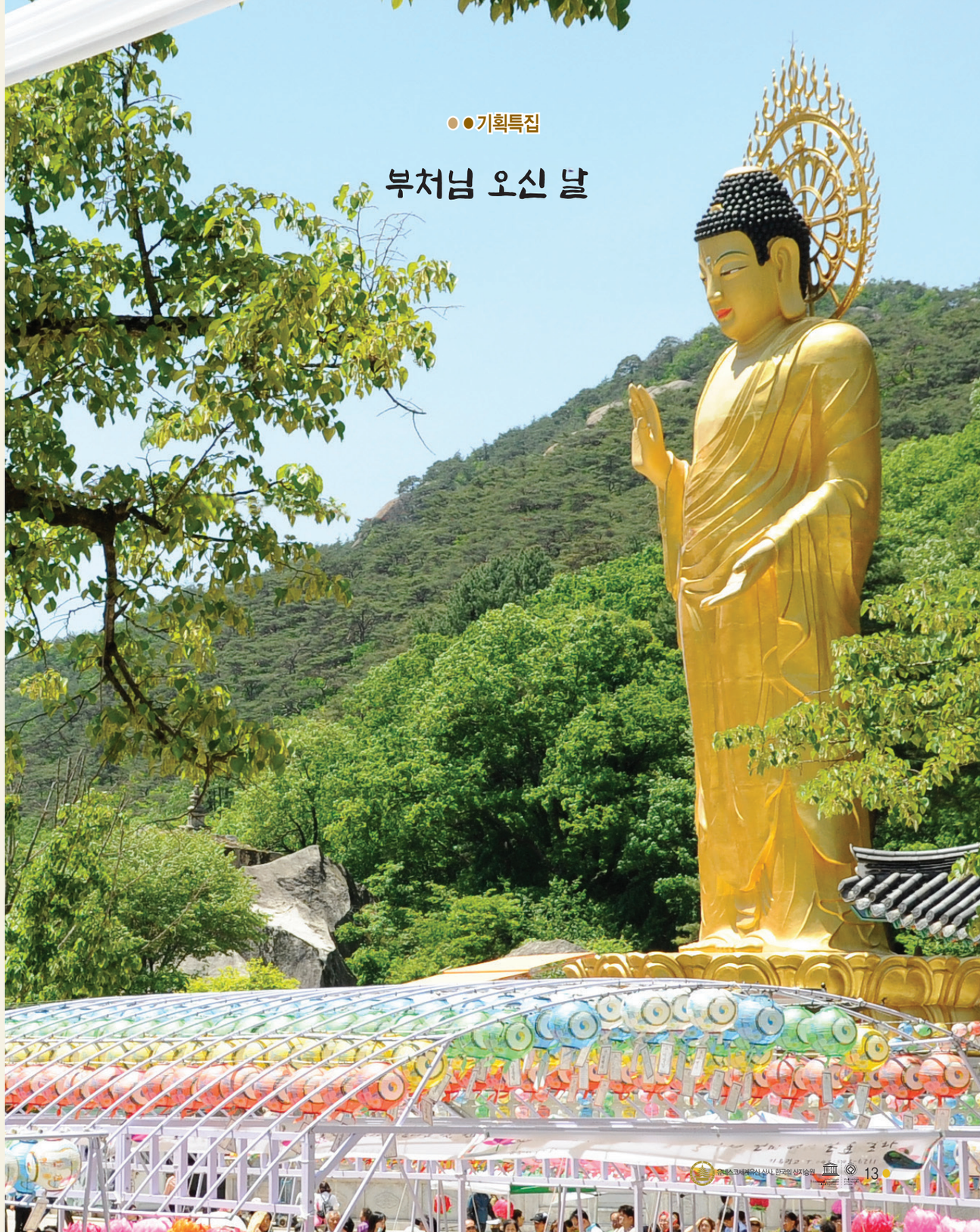
불신보편시방중佛身普遍十方中
삼세여래일체동三世如來一體同
광대원운항부진廣大願雲恒不盡
왕양각해묘난궁汪洋覺海妙難窮

부처님의 몸 온 세상에 두루하시니
삼세여래가 모두 한 몸이시네
크나큰 원력 구름같이 항상 다함이 없고
넓고 넓은 깨달음의 바다 아득하여 끝이없네

위광편조시방중威光徧照十方中
월인천강일체동月印千江一體同
사지원명제성사四智圓明諸聖士
분임법회이군생賁臨法會利群生

부처님 위광 시방세계 두루 비추고
천갈래 강에 비친 달은 본디 하나
사지에 통달한 모든 성인들
크게 법회에 임해 중생들 이롭게 하네

※ 보편 普遍 : 모든 것에 두루 미치거나 통通함
※ 각해 覺海:불교의 세계.
※ 위광 威光: 남에게 외경畏敬될 만한 덕의 힘.
범하기 어려운 위엄威嚴.
※ 편조 遍照 : 두루 비춤.
〈불교〉법신불의 광명이 온 세계를 두루 비춤.
※ 십방 十方 : 사방四方, 사우四隅, 상하上下를
통틀어 일컫는 말. 시방十方이라고 함
※ 월인천강 月印千江 : 하나의 달이 모든 강물에
비침.
※ 사지 四智: 불과(佛果)에 이르러 모든 부처의지혜.
평등성지,묘관찰지,성소작지,대원경지
※ 원명 圓明: 원만하고 밝음.



●●기획특집

부처님 오신 날

온 세상이 평화의 연등을 밝히며 부처님께서
우리 곁에 오심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모두 불성을 가진
청정한 존재임을 알려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당신의 깨달음에 그치지 않고 모든 생명의 평화와
안락을 위해 한순간도 쉬지 않고 정진하셨습니다.
우리는 본래 마음속에 참 생명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 참 생명은 나 자신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을
평화롭고 안락하게 만들 수 있는 무한 가능의
존재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나 고난에서도 스스로 당당하게
일어설 수 있습니다.
이 참 생명을 믿고 실천하는 것이 부처님이
몸소 보여주신 가르침이며 유일한 해탈의 삶이며
열반의 길입니다.
부처님 오신 날은 이런 가르침을
깊이 새기는 날이며, 지혜와 자비가 구족 되어 있는
자기 자신의 청정한 마음으로 돌아가겠다고
서원하는 날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단절과 고난의 상황을 벗어나
희망의 봄이 찾아왔습니다.
온 나라에 화합의 꽃이 활짝 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직접 견디고 극복하여 이겨내서
이뤄낸 평화로운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 하나만 잘한다고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자비의 실천을 통해 우리 모두 함께 노력해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순수 무구한 지혜가 있음을 알고
자신을 바로 보며 아낌없이 자비를 실천할 때
세상은 더욱 아름다워질 것입니다.
세계일화의 꽃을 피워내겠다는 간절한 다짐으로
불자들은 수행하여야 하겠습니다. 참선과 간경,
주력, 염불 등 불교의 수행 방법은 자신의
본래 면목을 찾는 진실한 길입니다.
종교를 넘어, 지역을 넘어, 세대와 계층을 넘어
보수와 진보, 남과 북이 모두 함께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고 자신의 소중함을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지혜를 갖출 때 우리는 비로소 우주 만물이
나와 둘이 아니라는 만유일체萬有一體 정신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나아가 모든 생명을
내 몸과 같이 아끼고 보듬어 감싸는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실천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지혜와 자비로 평화를 일구는 것이 우리 삶의
토대가 된다면 사회적 동체대비의 실천은
정의로운 분배에 있습니다. 소외가 없고 차별이 없는
세상을 위해 우리는 청년 일자리와 노인의 인권,
여성과 다문화 사회의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정진해야 할 것입니다. 지혜가 우리를 강인하게 하고
자비가 우리를 따사롭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와 자비의 정신으로 자신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세상의 평화를 주도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탐욕과 무지에 대해 깊이
성찰해야 합니다. 욕망이 충족되는 미래가 아니라
청빈과 자족의 미래를 그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열어나갈 상생의 세상입니다.
한 송이 꽃이 수만 송이의 꽃이 되고
그것은 다시 하나의 커다란 꽃이 됩니다.
우리는 각각 개별적인 존재이나 하나의 세상을
살아가는 도반입니다. 이 고귀한 인연을 인식할 때
우리들 세상은 세계일화가 됩니다.
나 자신이 부처임을 깊이 믿고 자기 자신의
본래 청정심을 회복해 진심을 다해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면 하루하루 어디를 가도 불국토이고
누구를 만나도 불보살님일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순간부터 부처로 살 수 있다면,
날마다 '부처님 오신 날'일 것입니다.
부처님 오신 뜻이 우리 가슴마다 꽃으로 피어나
각자 모두의 마음마다 평화가 가득하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 행복의 향기가
가득하기를 발원합니다.









꽃모닝! 하세요

현진 스님 청주 마야사 주지

올해 초파일은 예년과 견주어 양력으로는 좀 늦은 편이다.
앞서 윤달이 있었기에 한 달 밀려 생긴 현상이다.
해마다 초파일 무렵이면 불두화가 경건하게 피었는데,
이번에는 초파일이 늦어져서 꽃이 다 지고 난 뒤 봉축 법회를 열게 되었다.
이맘때마다 도량을 장엄하던 모란과 작약도 볼 수 없으니
울긋불긋한 꽃들이 없어서 다소 아쉽긴 하다.
그러나 봄꽃이 지나고 나면 다음 꽃이 바통을 이어 주므로
꽃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데이지도 피었고 붓꽃도 한창이다.
또한 며칠 사이로 병꽃들이 청초한 얼굴을 드러내고 있어서 더더욱 화사하다.
지금은 덩굴장미가 피어서 계절의 여왕, 오월을 증명하고 있다.
며칠 안에 말발도리와 고광나무가 꽃망울을 터트릴 태세다.
바야흐로 찔레와 더불어 흰색 꽃들이 자신의 존재를 알리기 시작하는 때다.
이러한 꽃 앞에서, 후딱 떠나지 말고 초파일까지는 꽃잎을 붙들고
있어 달라 부탁했다. 꽃 없는 축제는 빈약하고 초라할 수밖에 없다.
크고 작은 연등으로 무대를 연출한다지만 다양한 꽃들이 받쳐주어야
축일이 더 빛날 수 있기 때문이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정원으로 나가 식구들과 만난다.
정원의 표정은 하루하루 다르다. 정원의 시계는 빨라서 열흘 사이에 피고 지므로
매일 산책하며 눈길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꽃들에 대한 예의다.
어제 못 보았던 녀석들이 '저 여기 있어요'하고 고개를 내밀면 '꽃모닝!'하며
인사를 나눈다. 이곳의 인사말은 '굿모닝' 대신 '꽃모닝'이다.
이 한마디에 꽃처럼 기분도 활짝 열린다. 하긴 꽃으로 아침을 여니까
이런 표현이 아주 잘못된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굿모닝은



꽃의 축복이 있어야 안녕할 수 있기에 그렇다.
어제는 아주 죽은 줄 알았던 투구꽃이 눈에 띄어 반가웠다. 이른 봄에 호미로 캐버렸다면
어쩔 뻔했나 싶다. 이렇게 꽃들은 기다려주고 눈여겨보아야 할 때가 많다.
자기만의 시간과 계절이 있는 것이다.
세상의 꽃들이 한날한시에 일제히 꽃망울을 터트린다면 정신없을 것. 그래서 차례차례 피어야 아름답다.
그 순서가 어긋나면 세상사는 종말을 예고하듯 침울하고 어두워진다.
인간사도 마찬가지다. 모든 일이 순서대로 이루어져야 평온한 일상이 된다. 입학과 취업, 결혼과 출산 등
삶의 기회들이 순리대로 진행되어야 기쁨이 오롯해진다. 그래서 기도의 주제나 목적 또한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이다. 우리는 결국 순서대로 소원이 성취되길 기도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일본의 유명한 선사 이야기를 하겠다. 에도시대의 스승이었던 센가이 오쇼 선사에게 가족들이 인사를 드리며

가훈을 써 줄 것을 부탁했다. 뜻밖에도 선사가 내린 법어는 다음의 여덟 글자였다.
조사부사자사손사祖死父死子死孫死

죽을 사死를 여러 개 넣어놓은 가훈이 마음에 걸려 선뜻 받아들이기 쉽지 않았다.
이를 알아챈 선사가 이렇게 말했다.

"이보다 더 좋은 가훈이 어디 있소? 할아버지가 죽은 다음 아버지가 죽고,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들이 죽고, 아들이 죽은 다음에 손자가 죽어야 되지요.
이 순서가 바뀌어 자식의 상을 치르지 않는다는 뜻이니 참으로 필요한 가훈이오."

그러니까 순서대로 죽는 것도 복이라는 말씀. 죽음이란 말을 잔뜩 늘어놓아서
기분이 상할지 모르겠으나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만약에 죽는 순서가 뒤죽박죽 바뀐다고 가정해보라. 그게 집안의 불행이며 슬픔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사의 교훈은 아주 현명한 말씀이 아닐 수 없다.
뭐든 순서를 어기면 조화롭지 못하다. 장미가 피었다고 옆의 능소화가 시샘하거나
부러워하지 않는다. 자기만의 때가 있기 때문이다.
사람인들 어찌 성공의 때가 동시에 이루어지겠는가. 앞서거나 늦거나 하면서
피고 지는 꽃처럼 때로는 느리고 때로는 빠르게 그때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것을 알면 모든 일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조급해할 필요가 없다.
사람의 일도 일시에 성취되지 않는 까닭이다.
우리 절 감꽃이 알알이 피었다. 작년에는 해거리 때문에 감이 많이 달리지 않았는데
올해는 가지가 휘어질 듯하다. 이렇게 다른 나무보다 늦지만,
그 기회를 기다리다가 때를 만나면 자신의 역량과 신비를 활짝 드러내는 것이다.
그러니 내 인생이 성급히 풀리지 않는다며 푸념할 것인가.
카렐 차페크가 쓴 〈정원가의 열두 달〉이라는 책에서
"인간은 손바닥만 정원이라도 가져야 한다.
우리가 무엇을 딛고 있는지 알기 위해선 작은 화단 하나는 가꾸며 살아야 한다."는
글을 읽었다. 이것이 꽃과 나무를 가까이 해야 할 이유이기도 하다.
작은 화분에 있는 꽃들에게도 "꽃모닝!"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그 인사가 하루를 술술 풀리게 할 것이다.

●법주사 소식


5월 4일 도불기원법회


5월 5일 능인전 점안식


5월 13일 보청천 문화축제


5월 20일 천년의 향기2차


5월 20일 초파일



포근하고 따듯한 법주사의 봄

봄의 향기를 머금은 법주사

법주사의 따듯한 봄은
부처님의 인자한 미소와 많이 닮았습니다.
따스한 햇볕과 법주사의 아름다운 전경은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건강은 최상의 이익, 만족은 최상의 재산,
신뢰는 최상의 인연이다.
그러나 마음의 평안보다 더 행복한 것은 없다.

법구경

2023. 6 법주사 행사일정

일	월	화	수	목	금	토
				1 음 4.13 보름 광명진언기도	2 14	3 15
4 16 미륵재일 철야기도	5 17 다도반법회	6 현충일 망종 18 지장재일 지장회법회 합창단법회	7 19	8 20	9 21	10 22
11 23	12 24 관음재일	13 25	14 26	15 27	16 28	17 29 다라니독송기도 법주회 법회
18 5.1 초하루신중기도입재 보현회 법회	19 2 다도반법회	20 3 신중기도회향	21 하지 4	22 단오 5	23 6 탄성대종사 다례	24 7
25 8 약사재일	26 9	27 10	28 11	29 12	30 13	

■ **초 하 루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 대전지역 – 선샤인호텔 앞 오전 8시 10분
■ **지장재일 차량운행** : 청주지역 – 체육관 앞 오전 8시

법주사 광명진언 기도

법주사에서는 보물 1360호인 법주사 비로자나부처님전에 지극 정성으로
광명진언기도를 봉행하고자 합니다.
불자님들께서도 자기 자신과 주위를 모두 밝히고 맑힐 수 있는 광명진언기도에
동참하셔서 뜻 하시는바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 **일 시** 2023년 **6**월 **3**일(음 4월 15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첫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신묘장구대다라니경 독송 기도

"모든 공덕을 다 갖추고 있다" 라는 다라니 중
"신비하고 미묘한 공덕을 갖춘 위대한 다라니인 신묘장구대다라니를 통해
관세음보살님의 가피도 얻고 건강과 행복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일 시** 2023년 **6**월 **17**일(음 4월 29일) 토요일 **14:00~15:00**시 (매월 셋째주 토요일)
■ **동참금** **2**만원 ■ **장 소** 법주사 대웅보전



하안거 백일기도

하안거 백일기도는 100일 동안 외부와 단절하고 오직 깨달음을 위해
수행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오직 수행과 기도로서
원력을 삼으시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서원을 이루고자 정진하는 기간입니다.
물 맑고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세속의 번잡함을 여의고
덕 높은 스님들의 수행과 기도의 원력을 받아서 소원성취 이루시길 발원 드립니다.

- **입　　재** : 불기 2567년 **6**월　**3**일(음 4월 15일) 토요일
- **회　　향** : 불기 2567년 **8**월 **30**일(음 7월 15일) 수요일
- **동 참 금** : **20**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 - 51 - 010482** (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연등 모연문

속리산 법주사 청정도량에 자비의 등불을 밝힙니다.
등불공양의 공덕으로 진리의 법광이 비추어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성취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연등동참금

- **대웅보전** : 30만원
- **능 인 전** : 20만원
- **미 륵 전** : 10만원
- **삼 성 각** : 10만원
- **약 사 전** : 10만원
- **명 부 전** : 10만원
- **영 가 등** : 10만원

기도동참금

- **천 일 기 도** : 70만원
- **일년기도** : 30만원
- **백일기도(가족)** : 20만원
- **백일기도(개인)** : 10만원
- **인　　등** : 7만원
- **3 · 7일 기도** : 5만원

- **동참계좌** : 농협 403020-51-010482(예금주 : 법주사)
- **문의 및 접수** : 원주실 (043)543-4755

